

프랑스 리쎬의 교육과정

계명대학교 박일우

1. 들어가는 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의 인용을 먼저 보자.

“기억은 역사가에게 충분한가?”

“정의에 대한 요구와 자유에 대한 요구는 구별되는가?”

위의 질문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의 철학과목에서 제시되는 전형적인 철학 논술문제이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중등교육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이다. 즉, 프랑스의 모든 대학생들이 가진 사고의 폭은 이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 문제를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에서 때늦게 ‘기초교양교육’이 화두로 떠오른다. 가장 간단한 수준의 모국어 글쓰기, 더 나아가 기본적인 인성교육마저도 이제 대학의 임무로 떠넘겨지는 실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왜 ‘대학’에서 이런 일들을 맡아야하는지 항변하지만, 다수의 생각은 ‘그나마도’ 대학에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대’학 생 다운 자질을 키운 후에 대학에 들어오는지를 더듬어본다.

2. 프랑스의 학제

프랑스의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양상을 띤다. 프랑스 문부성의 ‘교육법’ L111-1항은 다음과 같이 프랑스 교육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¹⁾.

“교육은 국가의 첫 번째 우선 사업이다. 공교육은 학생들을 위해 수용되고 조직된다. 공교육은 기회의 균등에 이바지하고 학문적, 교육적 성공에 관한 사회적, 지역적 불평 등에 대항한다.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발전하는 능력을 공유함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을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에 참여시키려 노력한다. (...) 국가는 지식의 전달 외에도 공화국의 가치를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의 첫 번째 사명으로 정한다.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존엄과 의식의 자유, 정교분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공교육의 구성과 방법은 물론, 거기서 가르치는 교사 양성을 통해서 학생들과 협의한다.”

1) <http://www.legifrance.gouv.fr>, “교육법”, 프랑스 법률 서비스.

대학 이전의 프랑스 교육을 논의하기 전에 프랑스의 초·중등 학제 과정의 개요와 최소한의 명칭을 익힐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는 프랑스의 초·중등 학제를 거칠게 요약한 것이다. 대학 이전의 프랑스 교육을 논의하기 전에 프랑스의 초·중등 학제 과정의 개요와 최소한의 명칭을 익힐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는 프랑스의 초·중등 학제를 거칠게 요약한 것이다. 이 가운데 '리쎬'는 '꼴레쥬'의 마지막 학년인 '3학년'에서 최초의 공식 학위인 '중학교 수료(Brevet des collèges)'학위를 취득 한 후,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해 중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입증 받는 '최종학년'까지, 나이로 보면 15세부터 18세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중학교 수료' 학위는 리쎬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바칼로레아 역시 알려진 것처럼 대학 입학자격이라는 측면보다는 리쎬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이다.

<표 1> 프랑스 초·중등 학제

<i>école maternelle</i> (에꼴 마떼르넬: 유아·유치원)		
나이	학년	약자
3 -> 4	Petite section (소 섹션)	PS
4 -> 5	Moyenne section (중 섹션)	MS
5 -> 6	Grande section (대 섹션)	GS
<i>école primaire</i> (에꼴 프리메르: 초등학교)		
6 -> 7	Cours préparatoire (준비코스)	CP / 11ème
7 -> 8	Cours élémentaire première année (초등 코스 1학년)	CE1 / 10ème
8 -> 9	Cours élémentaire deuxième année (초등 코스 2학년)	CE2 / 9ème
9 -> 10	Cours moyen première année (중등 코스 1학년)	CM1 / 8ème
10 -> 11	Cours moyen deuxième année (중등 코스 2학년)	CM2 / 7ème
<i>Collège</i> (꼴레쥬: 중학교)		
11 -> 12	Sixième (6학년)	6 ^e
12 -> 13	Cinquième (5학년)	5 ^e
13 -> 14	Quatrième (4학년)	4 ^e
14 -> 15	Troisième (3학년)	3 ^e
<i>Lycée</i> (리쎬: 고등학교)		
나이	학년	약자
15 -> 16	Seconde (2학년)	2 ^{de}
16 -> 17	Première (1학년)	1 ^{ere}
17 -> 18	Terminale (최종학년)	Term or Tle

3. 리쎬의 교육과정

프랑스 문부성은 리쎬의 교육과정 유형과 개별 교과목들을 법률과 포고령으로 주도한다. 리쎬의 교육과정은 다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²⁾.

2) 이 글은 프랑스 문부성(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의 교육포털사이트인 eduscol.com에서 발췌한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 일반과정(voie générale)
- 기술과정(voie technologique)
- 직업과정(voie professionnelle)
- 연수과정(Se former par l'apprentissage)

각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3.1 일반과정

일반과정은 일반형 바칼로레아를 통해 주로 대학, 또는 예비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거치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문학(littéraire, L), 경제·사회(économique et sociale, ES), 과학(scientifique, S)의 세 가지 계열로 구성된다.

① 문학계열(L)

문학계열의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고등 교육의 장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개혁된 내용과 확장된 출구를 제공한다. 교과목들은 현대 세계의 발전에 부합하는 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 언어 연구를 중시하며, 다양한 예비 전공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처음부터 이 교과목들의 정체성은 외국어로 된 외국문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과목들과, <예술>, <수학>, <실용언어>, <고대 언어와 문화> 등의 특정 교과목에서 진행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수립되었다.

‘최종학년’은 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문학과 외국문학 교과목이 계속되며, 이 시점에서는 몇몇 전공분야가 소개된다. 법률이나 현대사회의 이슈들이 <수학>이나 <고대 언어와 문화>, <실용언어 1>, <실용언어 2 심화>, <실용언어 3>, <예술>과 결부된다. 여기에 역사·지리 교육이 이런 교과목들에서 분석 방법과 도구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문학계열 교과목의 편성 시간은 <표2>와 같다.

<표 2> L 계열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간

필 수		
교과목군	1학년	최종학년
프랑스어	4h	-
철학	-	8h
역사·지리	4h	4h
실용언어 1, 2(외국어)	4h 30	4h
체육	2h	2h
시민·법률·사회과학	0h 30	0h 30
과학	1h 30	-
문학	2h	2h
외국어문학	2h	1h30
1학년에서는 선택 1과목, 최종학년에서는 전공 1과목: ◆ 실용언어 3 또는 실용언어1, 2의 심화과정 ◆ 고대 언어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과 현대세계의 이슈(최종학년에서만 3h) • 수학(최종학년에서만 4h) • 예술(5h) • 서커스예술(8h) 		
개인별학습지원*	2h	2h
TPE**	1h	-
선 택(2)		
체육	3h	3h
예술 선택: 조형예술, 시네마-오디오비주얼, 댄스, 미술사, 음악, 연극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라틴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그리스	3h	3h
실용언어 3	3h	3h

이 표에서 유의할 것은 ‘개인별학습지원(accompagnement personnalisé)’과 ‘TPE’라는 교과목의 성격이다. 개인별학습지원이란 2010년 이후 리쎬의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주당 2시간, 연간 72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이는 리쎬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별도의 학습, 전공탐색 지원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교육방법과는 차별화되면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 문제에 봉착한 리쎬 재학생들을 지원한다
-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의 내용을 심화이해하거나 다른 관점을 도입한다.
- 향후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준다.

개인별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의 상담전문가와 행정적 지원이 뒤따른다. 이에 비해 TPE(travaux personnels encadrés)는 학습자의 주도로 진행된다. 이는 학제간적 노선의 도움을 받아 개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용하는 양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려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구두 혹은 문자로 된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해 준다.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교사들이 제시한 주제를 두고 학생들은 그룹 혹은 개별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와 관련된 자신만의 글쓰기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자료들은 모델이 될 만한 텍스트, 시, 신문기사, 과학 보고서, 비디오, 연극대본, 인터넷 자료, 광고 등을 망라한다.

TPE의 주제 역시 프랑스 문부성이 포고령으로 지정한 범위를 준수하며, 교과목 계열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된다. 아래는 그 사례이다.

- 공통주제: 개인과 집단, 윤리와 책임, 건강과 복지
- L 계열: 빛, 주인공과 등장인물, 재현과 실재
- ES 계열: 돈, 위기와 발전, 소비
- S 계열: 질료와 형태, 과학 발전과 기술 실현, 척도

중등교육과정에서 TPE와 같은 학제간, 통합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프랑스 중등교육의 한 주요 양상을 시사해 주며, 뒤에서 우리나라의 기초교양교육의 현황과 관련하여 재론하기로 한다.

② 경제·사회계열(ES)

경제·사회계열의 교과목들은 경제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교과목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 분야의 사회과학, 즉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의 개념과 방법, 기본 문제들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한다. '최종학년'에서 ES 계열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이 계열의 교과목들을 이수하면 <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학계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지리>는 이 계열의 교과목들에서 분석방법과 도구를 심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제·사회계열 교과목의 편성 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 ES 계열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간

필 수		
교과목군	1학년	최종학년
프랑스어	4h	-
철학	-	4h
역사·지리	4h	4h
실용언어 1, 2(외국어)	4h 30	4h
체육	2h	2h
시민·법률·사회과학	0h 30	0h 30
수학	3h	4h
과학	1h 30	-
경제사회과학	5h	5h
선택전공(수학, 사회정치학, 심화 경제학)	-	1h30
개인별학습지원	2h	2h
TPE	1h	
선택(2)		
체육	3h	3h
예술 선택: ◆ 조형예술 ◆ 시네마·오디오비주얼 ◆ 댄스 ◆ 미술사 ◆ 음악 ◆ 연극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라틴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그리스	3h	3h
실용언어 3	3h	3h

③ 과학계열(S)

과학계열은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1학년에서는 <수학>과 <물리·화학>, <삶과 지구과학>에 큰 비중을 둔다. 같은 줄기에서 기술 과학이 이들을 대신하기도 하며 농업부와 관련을 맺은 학교에서는 <생태학>, <농학과 토양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종학년에서는 과학 교육이 2/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련의 과학 분야 진로 탐색이 의미를 가진다. <물리·화학>, <수학>, <삶과 지구과학> 분야 전공들에 정보·전산분야 전공이 출가된다.

경제·사회계열 교과목의 편성 시간은 <표 4>와 같다.

<표 4> S 계열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간

필 수		
교과목군	1학년	최종학년
프랑스어	4h	-
철학	-	3h
역사·지리	2h 30	2h
실용언어 1, 2(외국어)	4h 30	4h
체육	2h	2h
시민·법률·사회과학	0h 30	0h 30
수학	4h	6h
과학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지구과학 ◆ 기술과학(1학년 7h, 최종학년 8h) ◆ 생태학, 농학과 토양학(1학년 6h, 최종학년 5h 30) 	3h	3h 30
선택전공(수학, 물리·화학, 삶과 지구과학, 정보·전산학, 농학과 토양학)	-	2h
개인별학습지원	2h	2h
TPE	1h	
선 택(2)		
체육	3h	3h
예술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예술 ◆ 시네마·오디오비주얼 ◆ 댄스 ◆ 미술사 ◆ 음악 ◆ 연극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라틴	3h	3h
고대 언어와 문화:그리스	3h	3h
실용언어 3	3h	3h
마학(馬學)과 승마	3h	3h
사회문화 실습	3h	3h

3.2 기술과정

‘일반기술 과정’의 두 번째 하위 과정으로, 바칼로레아를 거쳐 기술전문분야 고급교육기관의 학위 과정, 특히 BTS(브러베 고급 기술 학위과정,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와 DUT(대학기술 학위, 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과정, 궁극적으로 기술교육의 최상위 단계인 STS(section de technicien supérieur), IUT(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에 진학할 수 있다. 기술계열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목들은 일반과정에서와 같은 추상적인 성격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관련 분야는 2012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ST12D: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 STL(실험실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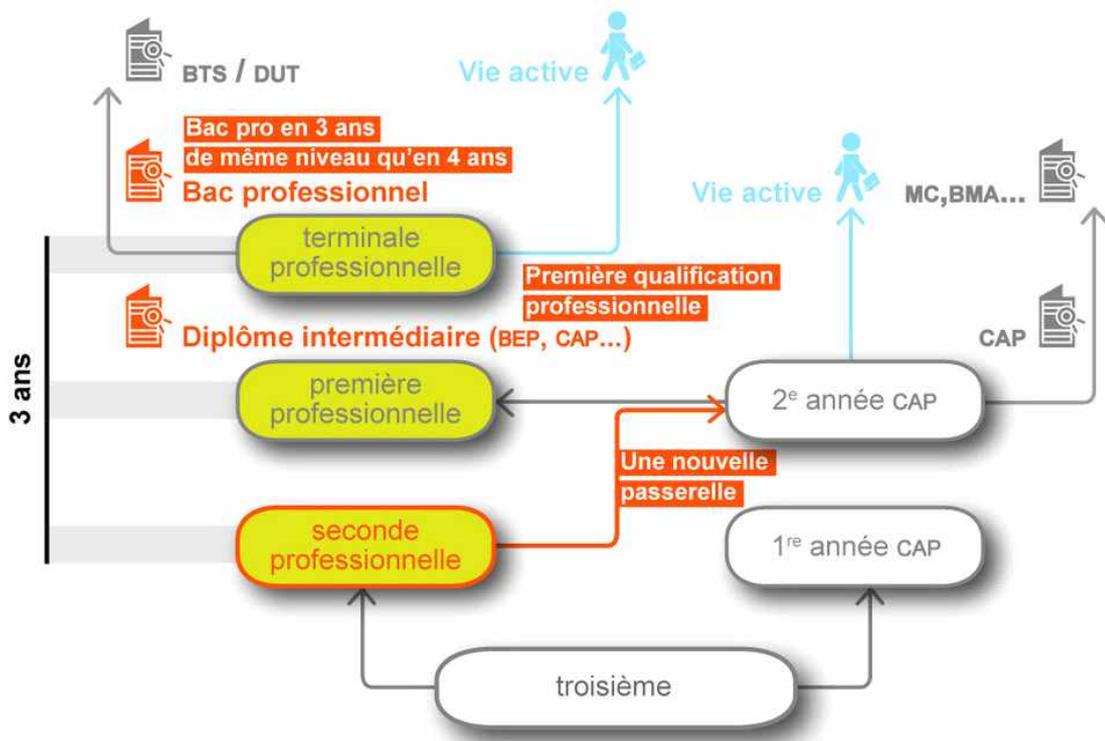
- STD2A(디자인, 응용예술 과학과 기술)

이 계열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류의 교과목 군이 있다.

- 건축, 구조시공
- 에너지와 환경
- 기술혁신과 에코 산업
- 정보·통신 시스템

3.3 직업과정

직업과정은 전문적 직업세계에 관련된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직업과정은 향후 전문 영역에서 지식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이 과정과 이후의 진학과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3 ans'로 표현된 부분이 리세에서의 수학 과정이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직업소양자격(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CAP)과 중간 학위(BEP, Brevet d'études professionnelles)를 취득하고 직업과정 바칼로레아(Bac Pro)를 준비한다.



<그림 1> 리세의 직업과정과 진학 흐름도

3.4 연수과정

연수과정은 리세 교육과정의 하나이지만 지정된 연수기관(CFA, 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에서 시행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지정 연수기관은 일반적인 성격은 물론, 업계에 밀접한 기술과 흐름을 연수생에게 전수하며 연수생은 그 분야의 업무를 마스터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쌍방은 노동 계약을 맺으며 연수생에게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연령과 가족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급료가 교부된다. 연수시간은 일 년에 400시간 이상이며, CAP 준비과정에서는 2년 800시간, 직업과정 바칼로레아 준비과정에서는 3년 1850 시간을 투입한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보낸 시간을 자격증 취득, 바칼로레아 통과에 필요한 수업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연수 기관에 파견되기 이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들은 <프랑스어>, <수학>, <조형예술과 예술문화>, <체육>, <예방건강>, <기술과 직업>, <실용외국어> 등이다.

4. 리세 교과목의 한 사례: <시민·법률·사회>

프랑스 중등 교육의 한 과정인 리세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앞 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하는 기초교양교육의 성격이나 범위 유사한 것들이 많다. <시민·법률·사회>는 리세 일반과정에 속하며 하부 유형에 관계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교과목이다. 이 과목의 구체적 구성 역시 프랑스 문부성의 지침에 따른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 교과목 원칙

<시민·법률·사회>는 리세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유아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콜레주에서 심화된 “시민사회 둘러보기(«parcours civique»)의 연장이다.

리세의 2학년과 최종학년에서 새로이 개설된 프로그램은 1999년 ECJS(European Center for Jewish Students)에서 개발한 자료에 힘입은바 컸다. 이 자료는 공화국의 가치와 원칙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주체적인 시민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민주주의 가운데에서 비판적 이성을 도야하게 한다.

시민정신의 개념 분석은 3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된다. 현대 세계의 실재에 봉착한 시민정신의 원민정신의 실천, 시민정신의 양태를 공부하는 것이 리세의 각 학년에서 제안되는 교육목표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가 설정된다.

- 학년별 주제

2학년: « 법치국가»
(중략)

1학년: « 제도, 정치적·사회적 삶, 그 개념과 수호»

(중략)

최종학년:« Le citoyen face aux grandes questions éthiques »

(중략)

- 교과목 기획

이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입부, 즉 역사와 현재 상황에 입각하고 질적 수준을 갖춘 참여자와의 만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제안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세부 사항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기획을 시도하기 바란다.

(중략)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되지만 논점을 갖춘 토론 방식을 추천한다. 그것이 판단력을 훈련하는 좋은 교육적 과정이며,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민주주의의 성격과 연관시키는 명시적인 방법, 정의 가운데에서 상호모순의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학생들에게 토론이 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토론 준비와 사전 정보수집, 토론 그 자체, 토론 규칙, 나아가 구두 혹은 문자를 통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생략한 내용에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수업 진행 순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교사의 지도내용과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 이에 따른 처리방법 등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5. 논의

앞에서 논의하였듯, 프랑스 교육의 주체는 학교나 개별 교사라기보다는 철저히 국가(문부성,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이다. 최근 프랑스의 각급학교에서도 대안적인 사립학교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프랑스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힘은 각급학교의 교육 전반에 나타난다. 각 과정의 구성, 목표, 기능은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자격증이나 과정 수료 요건 역시 국가가 정한다. 심지어 각 과정의 개별 교과목에서도 해당 교과목 편성 원칙, 수업 내용, 방법도 국가의 법률이나 문부성의 포고령(dossier)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법률·사회>의 사례에서 보았듯,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의 재량과 창의적 수업 방식, 예상하지 못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경향은 실은 교육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강력한 비전제시와 프랑스 특유의 탁월한 교사 양성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는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유지하며 나아가 강력한 교육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중등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콜레주와 리세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성된 인격을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이다. 우리가 말하는 대학교양기초교육의 여러 영역, 즉 ‘자연·과학·기술의 탐구’, ‘인간·문명·역사의 탐구’, ‘문학·예술의 탐구’, ‘정치·경제·사회의 탐구’³⁾는 실상 프랑스에서는 특히 3.1에서 본 리세 일반계열 교육과정의 틀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점이 프랑스 교육의 힘이며, 흔히 프랑스에서 교양교육은 대학 입학 전에 완성된다는 말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프랑스 리세의 교육과정은 범주 뿐 아니라 내용과 수업 진행방식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시도하는 기초교양교육의 수준을 능가하는 면이 있다. 앞 장의 논의에서 잠시 언급하였듯, 리세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된 ‘개인별학습지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에 가깝다. 게다가 ‘PTE’는 우리 대학에서 막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글쓰기’ 수업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것도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글읽기·글쓰기 수업의 모형을 보여준다. 특히 이 활동에서 보여주는 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제간적 접근 전략은 우리 대학들이 오히려 프랑스의 리세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리세는 물론,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유아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일관된 프로그램을 따른다는 것이 앞의 논의에서 밝혀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학문동향이나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교육과정의 부분적, 전면적 개편과 혁신이 뒤따르지만, 교육 정책의 저류에 흐르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양성’과 같은 큰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의 공교육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만큼 프랑스 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말로만 외치는 우리 교육당국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프랑스의 리세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어떻게 “정의에 대한 요구와 자유에 대한 요구는 구별되는가?”류의 질문에 자신 만의 논리 정연한 답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듯하다. 우리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이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 수준의 학문도야와 함께 “남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지닌 창의적·생산적 인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적어도 프랑스 대학생들의 지적 수준, 표현력은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 반면, 이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다듬다가 급기야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이 땅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3) http://konige.kr/sub02_04.php, “교양교육의 영역”, 한국기초교양교육원 자료